

흡연과 직업

이 경 종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 직업은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블루칼라직업의 흡연율이 높다는 전형적인 결과도 알려져 있다. 흡연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직업적인 스트레스나 직업문화(job culture)와 관련지어 보고한 논문이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1년도 33호 10권에 게재되어 관심을 끈다.

일반적으로 흡연과 직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두가지 구분이 사용된다.

그 하나는 '선택(selection)'으로서 개인적 특성 즉, 연령, 성, 거주지, 교육수준, 흡연개시 연령 등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원인설'로서 어떤 특정한 직업자체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흡연이 작업에서 비롯된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를 소화해 내는 코핑(coping)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흡연을 많이 하는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긴장의 요구가 보다 많다는 것이다. 흡연은 흡연에 대한 동료근로자들의 태도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인설의 두번째 세분된 경우이다. 각 작업장의 흡연에 대한 규범, 즉 '문화'는 흡연을 격려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선택과 원인설 모두 흡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선택을 통제한 후 원인설을 입증한 연구가 없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읍 건강조사(Orange County Health Survey)의 2,362명의 무작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되었다. 남자는 1,153명, 여자는 1,209명이었다.

'선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 성, 종족,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평균 흡연율은

23.5%이었으며 남녀차이는 거의 없었다. 예상대로 화이트칼라 직업은 흡연율이 낮아 21.9% 이었고 블루칼라는 32.4%이었다. 제조업근로자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아 29.5%로 나타났다. 다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세가지 모형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모든 모형은 연령, 교육, 육체적 업무스트레스, 정신적 업무스트레스, 성, 종족을 변수로 넣었다. 첫째 모형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서비스직종으로 구분되는 직업을 통제변수로 첨가하였다. 둘째 모형에서는 직업대신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등 산업명을 넣고 분석하였고 세번째 모형에서는 직업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모형에서는 업무스트레스가 작업문화보다 흡연과 더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선택' 중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낮았다. 성과 종족은 비앵글로 여성의 흡연이 적었고 비앵글로 남성의 흡연율이 높았다. 둘째 모형에서는 각 산업의 근로자에 있어서 업무스트레스와 작업문화가 모두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서비스업과 비교할때 제조업과 도매업 부문이 흡연율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째 모형에는 건축업에서의 화이트칼라가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볼 때 제조업과 도매업은 흡연율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업환경과 흡연과의 관계에 업무스트레스와 작업문화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작업문화는 화이트칼라에서 특히 중요해 보인다. 직업과 산업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이 연구는 작업환경의 행동적효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주의깊게 각 독립변수를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은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기전인 코핑(coping)으로서의 흡연과 사회적으로 습득된 형태로서의 흡연을 구분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흡연은 업무 환경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작업문화에 의하여 습득된 흡연은 조직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금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환경의 변화 프로그램은 특히 제조업과 도매업의 화이트 칼라에 유용해 보인다.